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리더의 선택

NK BIZ FORUM

중앙일보·JTBC 최고경영자과정



NK BIZ
FORUM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남북 관계 복원 과제 등 새로운 국면에 있습니다.

2018년 찾아왔던 한반도의 봄은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얼어붙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고,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로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에 새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완전한 평화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최대한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한반도 최대의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는 남북관계의 종착점이 아니며, 최종 목표도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의 선순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적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원로 자문단 일원으로 방북했을 때 우리 기업인들을 최고 VIP로 대접하는 북한 인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엄청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저스홀딩스 회장인 짐 로저스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새롭게 전개될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 발 먼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김교태
삼성KPMG 회장

남북경제협력, 준비해야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새롭게 전개될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남북경협,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러한 막막한 질문 앞에서 ‘대북 비즈니스 교두보’가 되어 그 여정을 함께 하고자 <NK비즈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커리큘럼으로 남북경제 협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손에 잡히는 해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사업을 모색하는 기업경영자, 각 분야의 리더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짊어지기보다 함께일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남북경협을 향한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겠지요.

모쪼록 이번 NK비즈포럼이 대북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준비를 수립하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지정학, 세계 구조의 표상입니다.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의 심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시대의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비전과 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며 미래의 열쇠입니다. 남북한은 가장 가까이 있거나 가장 먼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통일 한반도는 거쳐야 할 길입니다. 열려있는 지식만이 미래의 우리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NK비즈포럼은 작은 지식의 공유의 장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리더들의 해안에 감사 드립니다.

중앙일보, 삼성KPMG와 함께 하는 NK비즈포럼은 미래를 향해 열린 눈으로 우리의 답을 찾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미래의 준비를 사회의 열린 지식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와 NK비즈포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통일한국을 설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CEO와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NK비즈포럼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종합미디어그룹 중앙일보·JTBC가 마련한 최고경영자과정(AMP)입니다. 경제·인문 분야의 지식 정보와 함께 통일·북한 및 한반도 평화·안보 이슈, 그리고 대북 진출 등에 특화된 전문강연과 현장 참관·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NK비즈포럼의 강점은 폭넓은 네트워크입니다. 기업체 CEO와 고위 임원, 로펌·회계법인 관계자, 고위 공무원 등 각 분야 VIP급 인사가 참여해 학문적 연구 영역을 뛰어넘어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NK비즈포럼 원우회 구성으로 비즈니스 및 오피니언 리더그룹 활동의 경쟁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료 이후에도 최신 트렌드를 분석한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대북 진출 비즈니스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NK비즈포럼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 예측과 분석·대응하는 해안이 열리고 다가올 한반도평화경제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NK비즈포럼 원우회

NK비즈포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준 높은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오피니언 리더 그룹 관련 활동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드릴 것입니다.

총동문회, 기수별 모임, 골프대회 등 이벤트를 통해 선·후배 원우 간의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원우들과 관심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NK비즈포럼은 원우회와 함께 원우들의 관심 사업 컨설팅 및 분야별 심화학습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사후지원

명망있는 전문가·학자, 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개별 사업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중앙일보·JTBC는 물론 포럼 협력기관인 삼정KPMG, 성신여자대학교,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중앙일보·CSIS(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을 비롯한 권위있는 프로그램과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의 각종 발간물을 비롯한 자료와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최고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 독보적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

중앙일보·JTBC와 삼정KPMG·성신여대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합니다. NK비즈포럼을 주관하는 중앙일보·JTBC는 통일·북한 이슈에 차별화된 정보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언론이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삼정KPMG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우수 회계법인으로,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여 년의 창학 역사를 가진 성신여대는 ‘미래교육혁신’을 기치로 한반도 통일과 미래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흥미진진한 고품격 강의 프로그램

국내 최고의 명사와 전현직 장차관 및 경륜있는 대북 사업가 등 전문가로 짜여진 격조 있는 강사진이 함께 합니다. 중앙일보와 협력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가운데 엄선된 분들로 모였으며, 살아있는 지식과 재미가 함께 하는 고품격 강의를 선사합니다.

• 현장에 중심을 둔 특화된 커리큘럼

탁상공론식의 논의를 피하고 ‘손에 잡히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류현우 전 북한 대리대사와 고위 탈북인사(비공개 인물 포함) 등의 강연과 만남을 통해 생생한 체험담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스마트한 수강 환경 제공

매 강의는 시내 중심에 자리한 특급호텔에서 식사를 하신 뒤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은 책자뿐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주요강의

동반성과 한반도 미래경제 비전
북한 당국자 설득과 현지 경영의 경험
평양 자본주의 바람
북한 열차는 왜 마라토너보다 느릴까
내가 만난 김정은
UN 대북제재 A-Z
2022년 대선 토크아보기
古지도로 보는 한반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영 전략
핸드폰으로도 명품 사진 찍을 수 있다
와인과 함께 하는 인문특강 外 다수 강의



* 해외·국내 워크숍, 포럼 등 일정 진행

강사진

김광석 삼정KPMG 부대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前통일부 장관)
김영수 서강대 교수
김원대 캠프인재개발원 원장
김정봉 前NSC 정보관리실장
김진국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류현우 前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문성묵 예비역 장성(前남북 군사회담 수석대표)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위성락 前러시아 대사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이사장, 명지대 석좌교수
이성근 前성신여대 대외협력부총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前통일부 장관)
이종석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정세현 前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前통일부 장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국무총리)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정태용 연세대 교수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조동호 이대 교수(前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장)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IBK경제연구소장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前통일부 차관)
최병암 산림청장
최완규 前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최종문 UN유럽자원분류위원회 위원
최중경 前지식경제부 장관
추상미 영화감독
태영호 前영국 주재 북한공사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고품격

NK BIZ FORUM과 함께하는 해외연수



커리큘럼과 연계한 해외 현장방문(중국·러시아·독일·베트남·쿠바·몽골 등)을 통해 국제경제와 비즈니스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인문·경제 분야의 지식과 트렌드 따라잡기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 이후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함께 한반도 통일 경제를 가늠해 볼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중앙일보·JTBC는 2015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인 '평화 오디세이'를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북·중 접경지역 1400km를 달린 '평화 오디세이 2015'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살펴본 '평화 오디세이 2016'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NK비즈포럼과 함께하는 해외연수〉를 통해 한국 대표 지성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을 진행하며 열정과 에너지로 만들어낸 명품 브랜드 '평화 오디세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의 현지 특강과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펼쳐거나 대북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도 제공합니다. 중앙일보·JTBC가 주관하는 NK비즈포럼의 협력기관 중 하나인 삼정KPMG는 154개국 197,000명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이나 대북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국제적 안목을 키우려는 포럼 원우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 네트워킹과 최상의 지식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
명품 브랜드 '평화 오디세이'

추천의 말씀



박현일
(주)반도건설 대표

북·중 접경 지역을 따라 두만강에서 압록강 끝까지 1400km를 탐방한 5일 간 해외 현장 세미나 여정은 나의 인생 62년 동안 접해 보지 못한 충격과 가슴 아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NK비즈포럼 동참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 포착과 함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통일 한반도로의 시야 확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셔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대북 진출과 한반도 통일 미래가 대박인지, 쪽박인지를 말입니다.



변신건
신세계그룹 전략실
팀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한반도의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 갈등에 이은 중국 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등의 요소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사회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할 지혜를 찾는 일은 긴요합니다.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인 NK비즈포럼은 국내 최고 전문가와 명사들의 인사이트 가득한 말씀을 통해 길을 제시합니다.



임형주
팍페라 테너·

로마시립예술대
성악과 석좌교수

음악 예술을 하는 제게 한반도와 통일·북한 문제는 너무도 먼 화두였습니다. 대통령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침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앙일보·JTBC 최고경영자 과정인 NK비즈포럼을 등록했고, 바쁜 국내의 공연 스케줄을 쪼개가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물론 많은 분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임형주 평양 콘서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익수
신영자산운용 전무

시시각각 요동치는 치열한 경제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북한 변수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발과 대화를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흡사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을 갖게 하죠. 경제·인문 등 전반적 분야를 다루는 최고경영자 과정으로서 특히 북한·통일 이슈와 대북 투자·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NK비즈포럼은 북한의 변화를 읽고 통일 미래에 대비할 해안을 갖추도록 하는데 최적화된 강의와 현장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한 발 앞서 준비하십시오.

원우 회원사



협력기관



2021년 입학안내

선발인원	30명 내외
교육기간	제6기 2021년 11월 ~ 2022년 2월 (*코로나4단계시 개강이 연기될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만찬 포함)
장 소	롯데호텔서울 또는 더 플라자호텔
선발대상	-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주요 기관·단체장 -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국회의원, 정부 공공기관 고위 관료 및 사회 각 분야 리더급 인사 - 대북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있는 분
수 강 료	600만원(VAT 및 해외연수 별도)

※ NK비즈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NK BIZ FORUM

NK비즈포럼 특전

- 중앙그룹(중앙일보·JTBC) 회장 명의 수료증
- NK비즈포럼 총원우회 회원 자격 부여
- 중앙그룹 주최 포럼 및 행사 초청
- 경제·인문 및 대북 비즈니스 관련 최신 정보 공유 (월례 조찬강연, 분기별 세미나, 심포지움 등)
- 분야별 전문가·사업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개별 사업 컨설팅

북한 경제 시찰단 방북 시 최우선 참가,
북측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자문 등 지원

접수 및 문의

NK비즈포럼 사무국

전화 | 02-751-5547, 5512
팩스 | 02-751-5088
홈페이지 | nkbizforum.com
이메일 | nk-biz@joongang.co.kr

차별화된 비즈니스 노하우를 제공하는
NK비즈포럼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